

Neighbor

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네이버>

SPECIAL THEME
WEDDING



3

MARCH 2014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EXHIBIT

Editor 설미현



돌과 나무와 바람의 건축

이타미 준

그의 건축을 보면 회화가 떠오른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 그는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건축물은 아직도 우리에게 위안을 건넨다. 그의 대표작인 포도호텔, 방주교회 등은 이미 돌, 바람, 여자를 잇는 제주의 명물로 떠올랐으니... 그에게 제주는 일본 이즈오카에 이은 제2의 고향이었다. 그가 이 땅에 남긴 족적을 보면 재일교포라는 정체성이 군데군데 녹아든 모습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제주에서의 작업은 자연과 동화된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7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전은 거칠고 날 선 각이 돋보였던 일본에서의 작업부터 바다의 품을 담은 제주도 프로젝트까지, 40여 년에 걸친 그의 건축 세계를 아우른다. 전시 작품만도 건축은 물론 회화, 서예, 소품 등 500여 점에 달한다. 더욱이 그의 딸이자 건축가인 유이화 씨가 이타미 준의 소품으로 재현한 도쿄 아틀리에도 공개된다. 돌과 나무, 그리고 바람을 담은 이타미 준의 건축은 가장 감성적인 대지 위의 예술일 것이다. 문의 02-2188-0650



걷는 사람들 줄리언 오피

컬러풀한, 그리고 고도로 단순화된 초상화. 영국의 줄리언 오피, 그는 매우 그래픽적으로 현대인의 모습을 압축해낸다. 그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대상은 '사람'이다. 3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엔 그의 대표적인 초상과 함께 보행자들이 등장한다. 바로 서울의 보행자를 담아낸 신작으로,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각기 다른 인물의 움직임, 에너지를 포착해볼 것. 문의 02-735-8449



희망의 유혹 매화를 기다리며

옛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매화가 현대적으로 탈바꿈됐다. 정직성, 조종성 작가에 의해서다.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이유진갤러리에서 열리는 <매화를 기다리며>전. 이번 전시는 이제는 매화 축제를 통해 더 익숙한 매화의 숨은 미학을 돌아보고, 21세기의 매화를 고민해보는 자리다. 두 작가의 매화는 어쩌면 21세기의 치열함을 견뎌내는 힘이자 희망일지 모른다. 올봄 매화 향 깃든 미술관으로 산책을 나서도 좋겠다. 매화 축제의 북적거림 따위도 없으니. 문의 02-542-4964



공부하는 미술 아트 포 컬렉션

'미술은 도통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런 말로 상황을 무마하는 대신, '아트 포 컬렉션'으로 향해보자. 이곳은 44년을 국내 미술계와 함께 걸어온 갤러리 현대가 운영하는 전문 미술 아카데미. 궁금하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지금'의 이슈와 제도부터 컬렉션을 위한 현장 정보까지, 쉽게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미술 애호가를 위한 이번 봄 시즌 강의는 4월 1일부터 총 10회로 운영되며, 강의 장소는 두가헌 갤러리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 문의 02-2287-3578